

‘韓·中·日 文化와 思想’ 국제학술회의

대진대학교 대학원, 중국과 일본 학자초청 발표와 토론

대진대학교 대학원(원장 구득환)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과 일본의 학자와 전문가를 초청해 역사와 철학, 문학과 경제 등에 걸친 韓·中·日 文化와 思想 국제학술회의를 8월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 동안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국제학술회의는 수천년의 오랜 역사 속에서 교류와 영향을 주고받으며 각기 독특한 문화를 창조하고 그 사상의 폭을 넓혀 온 한·중·일 3국의 문화와 사상이 오늘날 현대와 과정에서 어떤 모습으로 정착되어 왔으며 또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어 있는가를 논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회의는 1995년 석사과정, 2004년 박사과정을 설치한 대진대학교 대학원이 처음으로 주최하는 국제학술회의로 기조연설은 박석무 단국대학교 이사장이 맡았으며 첫날 발표는 황유복 중앙민족대학 교수가 韓 佛敎典籍의 交流로 본 古代 中韓 文化·思想 交流를 시작으로 대진대학교 권인호 교수, 중앙민족대학 문일환 교수, 북경대학 왕방유 교수등의 발표와 토론

으로 진행된다.

둘째날에는 박진태 대진대학교 교수의 朝鮮後期 實學思想에서 土地問題의 性格과 일본에서 온 3명의 교수들이 발표하고 토론에 나선다.

이번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 구득환 대진대학교 대학원장은 “이번 국제학술회의가 우리 대학원의 학문연구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 기대하며 아무쪼록 우리 대학원과 이번 학술회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사건사고

포천시장 일행 태운 관용차 전복 광복절 경축 시민대중 타중행사 전면취소

지난 8월15일 오전 11시40분경 포천시 청성문화체육공원에서 포천시 일행 태운 관용차 전복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박운국 포천시장은 이마에 찰과상을 입었으며 최중규 전 문화원장과 수행비서, 운전

기사 등 3명이 부상을 입고 포천의료원과 의정부성모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고 있다.

박 시장 일행은 광복절 기념행사를 마치고 시민대중 타중을 위해 청성산을 오르던 중 차량이 10여m

아래 공인 주차장으로 미끄러지면서 전복됐다.

경찰은 비포장이던 노면이 비가 온 뒤 젖어 언덕을 오르던 차량이 미끄러진 것으로 보고 운전자 과실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이날 사고로 정오에 있을 예정이던 시민대중 타중행사는 전면 취소됐다.

하승원 기자 forme65@paran.com

어머니 살해 후 암매장 폐륜아들 허모씨 3년 동안 이혼요구에 핏김에 살해

아내와 이혼을 요구하는 홀어머니를 살해하고 시신을 포천시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20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허모(29세)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지난 8일 오후 11시경 어머니(77세)의 집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다.

또 허씨는 범행 다음날인 9일 시신을 텐트 가방에 넣어 자신의 승합차 뒷좌석에 싣고 포천시의 한 야산으로 가서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있다.

3년 전 아내(29세)와 결혼한 허씨

는 어머니가 평소 머느리에 대해 “키가 작고 못생긴데다 돈도 없다”며 출근 이혼을 요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어머니의 요구로 임신 중절을 받은 후 아내와의 사이에 2살 짜리 딸을 둔 허씨는 어머니를 살해하기 위해 지난 4월 혼자 어머니 집 근처의 오피스텔로 옮겨갔다.

경찰조사에서 허씨는 “어머니가 계속 아내와의 이혼을 요구하고 이혼하지 않으면 재산을 한 푼도 물려주지 않겠다고 말해 핏김에 살해했다”고 말했다.

하승원 기자 forme65@paran.com

“어린 생명을 구해주세요!”

같이 일하고 있는 전봉수 씨의 딸 기린 양(8세)이 지난 1월27일 백병병으로 서울 야산 병원에 6개월 째 입원해 있으나 차도는 없고 오히려 악화만 되고 있어 골수 이식수술을 받아야 살릴 수 있다고 한다.

지금까지 치료비만 이미 억대에 이르고 있는데 어머니는 식당에 나가 일했으나 환자 간병으로 24시간 환자 곁에 있고 아버지는 사우나에서 일하고 있으나 그의 적은 수입으로는 지금까지의 치료비와 앞으로 나올 어마어마한 골수 이식 수술비를 마련할 길이 없어 치료를 포기해야하는 딱한 사정을 보다 못해 귀 신문사와 독자 여러분의 도움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어린 생명이 소생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모아 주십시오.

우병연 011-426-4117

시인의窓

무연 2

인수양(포천문인협회회원)

밖에서 들어온 강아지야
짓지 마라

별을 애무하고
초가을의 차가움을 포용하고
풀벌레 소리 느끼며
모처럼 바람 불지 않는 시간
나뭇잎 조용히 쉬고 있지 않니!

〈감상노트〉

자연도 창조 이론에 대해서만큼은 절대로 토를 달지 않는다.
목욕하 제자리를 지켜가며 사람과 손잡고 싶어한다. 그러나 인간은 좋은 자리를 찾아 뿔뿔로 삼을 꺾고 수저를 던진다. 심지어 동물의 목을 따고 가족을 버거 자신들의 체온을 의존한다. 물론 창조론에서 그랬듯이 자연을 잘 다듬어 그 속에서 먹거리를 일구라 했다. 그것은 자연을 지배

하리는 못보다는 자연과 화목한 화답을 나누려는 애기일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인간의 세상은 어떤가? 서로 반목하며 투쟁으로 난장판이다. 진정한 인간의 도덕과 윤리는 계약의 속성으로 타락해 버렸다.
착한 사람은 발등보다는 발 밑의 흙의 향기를 사랑해야 한다. 어느덧 계절은 비상구를 지나 사색의 입구에 서있다. 안 익 수(시인)

자유기고 민간외교를 맡은 외국학생 우리 예절 체험 교실

경기도예절교육연구원(원장 오정순)은 8월10일 포천시청과 연계하여 중국, 몰도바, 벨라루시아 학생들을 맞아 ‘우리 예절 체험 교실’을 열었다.

학생 33명, 인솔교사 3명, 통역 2명 등 총 38명이 참가한 ‘우리 예절 체험교실’에서 우리 옷 입기, 우리 절 실습 그리고 전통 다례와 떡먹기 체험을 통해 외국학생들의 우리 문화 이해를 돕고 나아가 우리 예절과 문화를 세계에 홍보·전파하는 민간사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복을 입고 어색해 하면서도 우리나라의 문화에 흠뻑 빠져 더운 여름도 있는 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우리 절 실습 및 다례체험을 하는 모습은 글로벌 시대를 실감하게 하였다.

체험교실을 마친 중국 학생은 ‘한복의 색이 선명하고 옷에 한국 문양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독특함과 어른들에 대한 경순한 예의 방식이 아름답다’고 했고 통역을 해주던 한 중국 유학생은 ‘3년 만에 처음 해보는 한국의 예절 체험이 경이롭고 경기도예절교육연구원 같은 교육관이 있는 것이 매우 부럽다고 말했다.

몰도바의 스텔라는 “한국 문화에 대한 느낌이 좋아서 한국 사람들과 친해지고 싶다.”고 했고 벨라루시아의 율가 학생은 “처음 입어 본 한복의 느낌이 아주 좋

았고 방문했던 여러 나라들 중에서도 특히 한국 문화에 가장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등 우리 문화에 흠뻑 빠져 즐거움 한때를 보냈다.

경기도예절교육연구원은 2007년1월 경기도예절교육연구원 경기도예절교육연구원으로 기관 명칭 변경을 계기로 독자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큰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이밖에 ‘찾아가는 연수과정’을 개설하여 다문화 가정, 소외된 시설, 군부대, 지역교육청의 요청에 의하여 찾아가는 연수를 실시하여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밖에 교육행정혁신 실무능력 향상과정 등 일반직을 대상으로 한 연수(3월, 6월, 7월)와 초·중등 교사를 위한 독서지도 능력 향상 전문과정(8.6-10)을 운영하여 연수생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경기도예절교육연구원의 특색 사업인 예절지도사 심화과정과 결혼마 예절학당은 연수 희망자들이 줄을 잇고 있다. 한편 앞으로 운영될 초등 학급경영 능력 향상 과정과 잘 가르치는 최고 선생님 전문과정도 큰 관심을 모으고 있어 그 성과가 기대된다.



이정자 경기도예절교실

추천! 한마당 생각이 아름다운 사람들 이야기



이보용 본지지원위원

좋은 사람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 이야기 하더군요. 하지만 나는 약하고 보잘 것 없는 사람 앞에서 자신을 한없이 낮추면서도 힘으로 남을 억누르려 하는 자를 앞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그 사람의 행동에서 진짜 겸손함을 배웠습니다.

문득문득 그리워지는 사람을 비로소 만났습니다. 자신의 좁은 식견에 대해 이야기 하더군요. 하지만 나는 그 사람의 눈동자에서 원대한 꿈과 이상을 엿보았습니다.

참 흐뭇한 날이었습니다. 이렇듯 좋은 사람을 친구로 둔다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좋은 글 중에서-
(문의 011-342-5834)

*용경자의 세상읽기 14

인생

삶은 시련과 극복의 산등성이를 등반하는 산행이었다. 그 사이에 잠깐의 휴식과 샘물로 행복을 느끼기도 하지만 오래가지 못하는 욕심일 뿐, 시간 앞에 놓여진 삶은 다시 산을 올라야 하는 시련을 향해 흘러가고 있었다.

홀 시어머니와 손위 시누이 세분 그리고 어려운 목장살림 등 어려운 조건으로 가득 찬 막내 외아들의 아내자리를 지켜내 언니는 오늘도 그 자리에서 묵묵히 자기 일을 찾아 나서고 있었다.

형부가 외아들인지라 아들이 많아야 한다고 해서 계속 낳은 것이 아들 하나에 딸만 연년생과 쌍둥이로 세명이나 되어 버렸다. 딸 쌍둥이를 낳은 것이 못마땅한 듯 시어머니는 은근히 언니를 구박했지만 그것도 묵묵히 긍정해 버리고 마는 언니는 무슨 마음으로 30년 세월을 걸어 왔을까? 궁금하기도 하다.

하지만 인생이란 굴곡이 있듯이 형부가 열심히 일을 하여 어려운 살림을 우뚝 일으켜 세우셨고 이제는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의 재산과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다시 건강이라는 능선이 형부 앞에 놓여져 있었다. 술을 워낙 많이 드신 탓도 있지만 남들보다 열심히 일해왔기에 돌보

지 못한 몸이 이제는 병명을 알 수 없는 병으로 입원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환할한 키에 기세 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환자복을 입고 계신 어깨 내리꼴을 보니 아마도 내리막길을 달리는 인생의 한 능선이었다.

유학 가있는 자식들과 친분이 있는 사장님들이 많지만 형부 옆에는 언니만 있을 뿐이었다. 언니가 쫓겨가는 악을 꼬박꼬박 받아먹고 있는 형부에게서 “자식 새끼보다 마누라가 최고야!”라고 할 만도 하건만 아직도 언니 앞에서는 큰소리로 위엄을 찾는 것을 보니 금방 당당하게 일어서서 활동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형부가 잠시 능선의 밑에서 휴식을 취하고 나서 다시 극복의 산행을 하리라는 믿음을 가지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과연 지금 어느 능선을 걸어가고 있는 것일까? 돌아보았다. 딱히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면 극복의 능선을 타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그리고 다시 어떤 시련이 온다 해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인생이란 것을 어렵잖아 알 것 같다.



자유기고 한내천 청소 봉사를 마치고

심분도 안되었는데 온 얼굴이 땀으로 범벅이 되는 것 같았다. 땀이 눈 속으로 들어가 따갑고 쓰리고 몹시 거북스러워 쓰레기를 쫓기가 어려웠다. 손수건을 준비하지 않은 실수를 감내하며 먼지집 한쪽을 눈을 감고 땀을 짖어 보지만 어렵었다.

턱으로는 땀이 뚝뚝 떨어지고 풀숲에서 올라오는 열기는 깨끗해지기를 거부 하는 것 같았다. 주위를 둘러보니 모두들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어 있었지만 묵묵히 열심히 쓰레기를 잡고 계신다.

과연 새마을 지도자와 부녀회장님들 이시나.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따가운 햇볕 속에서도 누군가가 해야만 하는 일인 것을 잘 알기에 그리고 시작하면 최선을 다해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야 끝내는 분들에게 더더욱 힘드실 것이다. 기다란 집개로 쓰레기를 집어 큰 파란봉지에 연신 담지만 잠미와 집중 게릴라성 폭우로 밀려와 쌓여진 쓰레기들은 잔인하다.

농약병, 드링크 병, 우유팩, 스프로폼 조각들, 비닐, 그릇, 풀이 든 종이 나무관대기 등등 나열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하다. 주는 쓰레기를 한곳에 모아놓니 엄청난

양이 된다.

그래도 계속적으로 비가 온다 17일 날은 아침부터 행하 내 날이 들어 계획대로 하수 우리 하수종말 처리장 앞에서 부터 웨딩홀 못미처 까지라도 수거 할 수 있어 다행이었다.

작업이 끝나고 한내천을 바라보니 새삼스레 맑고 깨끗해진 수질과 송우리 경관이 어우러져 ‘사람과 자연이 만나는 도시 포천’답게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은 생명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물은 모든 생명체의 근원인 분들에게 더더욱 힘드실 것이다. 기다란 집개로 쓰레기를 집어 큰 파란봉지에 연신 담지만 잠미와 집중 게릴라성 폭우로 밀려와 쌓여진 쓰레기들은 잔인하다.

농약병, 드링크 병, 우유팩, 스프로폼 조각들, 비닐, 그릇, 풀이 든 종이 나무관대기 등등 나열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하다. 주는 쓰레기를 한곳에 모아놓니 엄청난



김기호 소흘읍치정리부녀회장

“전국 꽃배달 서비스,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꽃마음은 사랑입니다!”

꽃을 통해 당신의 마음을 전하세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 생화
- 근조화환
- 사랑의 꽃바구니
- 동·서양란

꽃배달서비스
☎ 031) 534-9968

포천시 신읍7동 175-8